

부산별신굿의 해신(海神)과 해신제(海神祭) - 2018년 두모포별신굿 사례연구 -

문 혜 진*

| 목 차 |

- I. 머리말
- II. 두모포 마을의 해신당
- III. 매방우굿과 후리
- IV. 물국제석굿과 용왕굿
- V. 맺음말

| 국문초록 |

부산시 기장 두호 마을은 조선시대 수군만호가 지키는 두모포영이 있었던 해양 군사 요충지로서, 두모포별신굿 또한 기장에서 ‘막장모’·‘굿장모’라고 불리는 제관이 가장 엄숙하게 제의를 올리는 마을로 유명하다. 이 외에도 두호 마을은 조선시대의 해양 군사 요충지답게 부산의 다른 별신굿에서 보기 힘든 ‘길놀이’, ‘매방우굿’, ‘꾸러미 띄우기’, ‘후리’ 등 해신에게 올리는 지역 특유의 전통적인 의례의 형태가 남아있는 편이다. 기장별신굿을 비롯한 부산별신굿은 어촌마을에서 연행되는 마을굿으로 어촌의 생업적 특성상 풍어제라고도 부른다. 즉, 예전의 반농반어의 생계에서 현재는 어업 및 상업이 중시되면서, 부산별신굿에 있어서

* 한국해양문화원 선임연구원 / shlove0315@hanmail.net

점점 선주들과 해녀들의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해신을 모시는 제의가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부산별신굿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신이나 해신제의 특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산의 바다를 관장하는 해신과 해신에게 올리는 제의적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부산별신굿에 있어서 전통적 제의방식이 다소 강하게 남아있는 2018년 두모포별신굿을 연구대상으로, 매방우굿·후리·물국제석굿·용왕굿의 현지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부산의 해신과 해신제의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종교의 세속화로 동해안별신굿의 각 지역적 특성이 사라져가며 동일화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모포별신굿의 사례연구를 통해 부산 지역의 해신과 제의 방식에 대한 민족지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두모포별신굿, 해신당, 용신, 영등할매, 후리

I. 머리말

동해안별신굿은 속초·강릉·삼척·울진·영덕·포항·울산·부산 등의 동해안 해안선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굿이며, 그 중에서도 5~7일간 안굿과 밖굿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기장별신굿은 동해안별신굿 중에서도 연행기간이 가장 길며 굿거리 수가 가장 많다. 기장의 별신굿은 부산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공동체 제의로서, 현재 두호·대변·학리·칠암·이천·공수가 6년에 한 번씩 번갈아가며 5~7일간 별신굿을 지내고 있다. 그 중 두모포별신굿은 2012년 연행된 이래 6년의 주기를 돌아 2018년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6일간 두모포 앞바다에서 연행되었다.

두모포별신굿은 제관을 ‘막장모’·‘굿장모’라고 칭하는 것에서 나타내듯이, 부산의 다른 별신굿에 비해 지방 특유의 제의적 전통이 남아있

는 편이다. 즉, 두호동에서는 별신굿을 올리기 전 무당을 불러 대잡이를 하여 들어가는 두 곳의 집을 제관으로 선정하였는데, 한 명은 ‘막장모’를 맡고 다른 한 명은 ‘굿장모’를 맡았다. 현재 두호동 앞 바다에는 시멘트로 덮어서 모래사장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거기에 모래사장이 있었고 그곳에 막장모가 짚으로 삼각형의 막사를 지어 별신굿에 올릴 음식을 만들었다. 막장모는 내외간에 별신굿이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거기서 생활했으며, 바다에 목욕재계를 하는 금기를 지켰다. 반면 굿장모는 별신굿이 진행되는 굿청을 지키며 굿의 진행과 관련된 일련의 책임을 맡았다.¹⁾ 하지만 현재는 별신굿이 세속화되어 대잡이로 제관을 선정하는 풍습과 제물의 부정을 막기 위한 막장모의 역할은 사라졌다. 대신 마을 이장과 어촌계장이 제관으로 지정되어 막장모, 굿장모라고 부르는 명칭만 남아있다. 이 외에도 두모포별신굿에는 부산의 다른 별신굿에서 보기 힘든 ‘길놀이’²⁾, ‘매방우굿’, ‘꾸러미 띄우기’, ‘후리’ 등 해신에게 올리는 지역 특유의 전통적인 의례의 형태가 남아있다.

기존의 부산의 별신굿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제의의 절차 및 특징을 다룬 것으로 강용권의 『釜山地方의 「별신굿」考』(1970),³⁾ 국립해양박물관의 『동삼풍어제』(2013),⁴⁾ 김형근의 『동해안 남대 별신굿의 특징 연구』(2013)⁵⁾ 등이 있으며, 부산 별신굿의 연희적 특성을 다룬 것으로 심상교의 『영남 동해안지역 풍어제의 연행특성과 축제성』(2005),⁶⁾ 부산 별신굿의 제신을 다룬 연구로 문혜진의 『동해안 기장 별신굿의 제신(祭

1) 2018년 2월 19일 두모포별신굿에서 김영희 무녀와의 인터뷰.

2) 마을입구에서 선주들은 만선기(또는 성황기)를 들고 농악대는 풍물을 울리며 굿청까지 들어오는 놀이이다.

3) 강용권, 『釜山地方의 「별신굿」考』, 『한국문화인류학』 3, 1970.

4) 국립해양박물관, 『동삼풍어제』, 국립해양박물관, 2013.

5) 김형근, 『동해안 남대 별신굿의 특징 연구: 안대 별신굿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7, 2013.

6) 심상교, 『영남동해안지역 풍어제의 연행특성과 축제성』, 『한국무속학』 10, 2005.

神)에 관한 고찰」(2017)⁷⁾ 등이 있다. 즉, 어촌 중심으로 진행되는 부산 별신굿의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바다를 관장하는 해신(海神)이나 해신제(海神祭)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기장별신굿을 비롯한 부산별신굿은 어촌마을에서 진행되는 마을굿으로 어촌의 생업적 특성상 풍어제(豐漁祭)라고도 부른다. 즉, 어촌마을의 실정상 부산별신굿에 있어서 선주들과 해녀들의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해신을 놀리는 거리가 중요함으로, 부산별신굿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신이나 해신제의 특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산의 바다를 관장하는 해신과 해신에게 올리는 제의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 부산별신굿에 있어서 전통적 제의방식이 다소 강하게 남아있는 2018년 두모포별신굿을 연구대상으로, 매방우굿·후리·물국제석굿·용왕굿을 고찰하여 해신과 해신제의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종교의 세속화로 동해안 별신굿의 각 지역적 특성이 사라져가며 동일화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모포별신굿의 사례연구를 통해 부산 지역의 특색 있는 해신과 제의 방식에 대한 민족지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Ⅱ. 두모포 마을의 해신당

두모포 마을은 기장읍의 북동쪽에 위치해 북쪽은 일광면 학리, 서쪽은 신천리, 남쪽은 대변리와 접하고 있다. 해안가에 두모포진성 터가 남아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두모포는 조선 시대 연해 방어를 위한 군사 요충지였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두모포는 현의 동쪽 5리에 있는

7) 문혜진, 「동해안 기장 별신굿의 제신(祭神)에 관한 고찰: 2013년 기장 별신굿의 사례 연구」, 『향도부산』 34, 2017.

데, 수군만호가 지킨다고 하였고, 『신증동국여지승람』(기장현, 관방조)에 의하면, “두모포영은 현의 동쪽 7리에 있으며, 수군만호 1명이 있다고 하였다. 정덕 경오년(1510년, 중종 5)에는 수군만호가 지키는 두모포영에 석성을 쌓았으며, 그 석성의 둘레는 1,250자이고, 높이는 10자였다. 이후 『여지도서(輿地圖書)』(기장현, 관액, 1760년 경)에 따르면, 두모포영은 인조 7년(1629년)에 동래로 진을 옮겨가게 되어, 두호동은 해양 군사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을 잃게 된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읍내면 두호동과 월전동이 합쳐져서 동래군 기장면 죽성리가 되었으며,⁸⁾ 1995년 기장이 부산시에 편입된 이래 두모포 마을은 부산시 기장군 죽성리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두모포별신굿은 6년을 주기로 연행되며, 2018년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굿이 진행되었다. 굿거리 순서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2018년 두모포별신굿 굿거리 순서

날짜	굿 제차
2월 17일	길놀이 - 제기집굿(굿장모, 막장모) - 당맞이(장두당, 국수당)
2월 18일	당맞이(거릿대장군당, 매방우) - 문굿 - (안굿) 가망굿 - 세존굿 - 제석굿
2월 19일	군웅굿 - 성주굿 - 손님굿 - 부인굿 - 천왕굿
2월 20일	(밖굿) 축원굿 - 대신굿 - 세존굿 - 지신굿 - 가망굿 - 축원굿
2월 21일	산신굿 - 용왕굿 - 심청굿 - 곁립굿 - 놀음굿
2월 22일	천왕굿 - 대잡이 - 장수굿 - 월례굿 - 꽃노래 - 뱃노래 - 거리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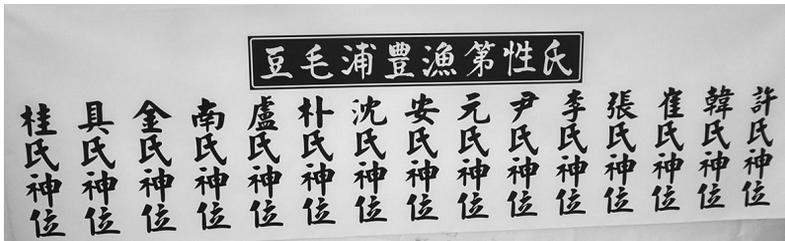
두모포별신굿에서 마을 수호신을 모시는 성소(聖所)로는 장두당(당산할머니당), 국수당(당산할아버지당), 거릿대장군당, 매방우(어사암)

8) 『세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기장현, 관방조), 『여지도서(輿地圖書)』(기장현, 관액, 1760년 경)를 오진환 외 6명, 『부산지명총람』 제7권,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1, 217~218쪽에서 재인용.

가 있다. 2018년 두모포별신굿에서는 2월 17일부터 2월 18일 이틀에 걸쳐 마을의 제당을 돌며 마을의 수호신을 굿당에 모셔오는 당맞이를 했는데, 그 순서는 (첫째 날) 장두당 - 국수당 - (둘째 날) 거릿대장군당 - 매방우 순으로 당을 돌면서 신을 모셨다. 두모포 마을의 제당 중 해신당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 마을 수호신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두당은 두모포 마을의 동북쪽 바닷가에 있으며, 골매기할매제당으로도 불린다. ‘골매(골매기)’는 성씨(姓氏)가 붙어서 남성이면 ‘○씨할매’, 여성이면 ‘○씨할매’라 한다. ‘골매기’는 마을의 수호신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지만, 더러는 마을의 창건신적인 성격을 겸한 경우도 적지 않다.⁹⁾ 두모포 마을의 골매기할매는 마을의 수호신이자 마을의 시조로 나씨 할머니로 추정되지만,¹⁰⁾ 두모포별신굿의 각성받이는 아래의 <사진 1>과 같이 나씨가 없으며 두모포 마을 주민의 성씨별 구성은 경주 김씨와 김해 김씨가 상대적으로 많다.¹¹⁾ 다시 말해서, 장두당의 골매기(나씨)할매는 두호 마을의 창건 당시의 성씨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모포 마을의 입향시조신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사진 1> 두모포별신굿의 각성받이



9) 장주근, 『韓國의 神堂 形態考』, 『민족문화연구』 1, 1964, 174쪽.
 10) 김승찬, 황경숙, 『부산의 당제』,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2005, 507쪽.
 11) 오건환 외 6명, 앞의 책, 2001, 217쪽.

이에 두모포 골매기할매제당에 모셔진 제신을 기장의 다른 제당에 모셔진 골매기할매신 중 신위가 있는 대변리의 ‘동마고대신지위(洞麻姑大神之位)’, 동백리의 ‘고당(姑堂)할머니위(位)’로부터¹²⁾ 한국의 해안지역에 여성 해신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는 ‘마고할매’와의 관련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마고할매는 농촌에서는 농업을 관장하는 신으로 어촌에서는 어업을 관장하는 신인 영등할매로 그 지역에 좌정하는데,¹³⁾ 동해지역에서의 마고할매는 지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산적 기능과 삼신할매로써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부녀자에게 자식을 점지해주는 신¹⁴⁾으로 좌정하기도 한다.

두모포 골매기할매의 마고신적 성격은 두모포 마을의 제당 중 유일하게 골매기할매제당에만 모셔진 신체(神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두모포 골매기할매당의 신체는 자손의 수호신인 삼신을 표상하는 시준단지¹⁵⁾이며, 이는 동해안지역의 마고할매의 자손을 관장하는 신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두모포 골매기할매제당의 시준단지는 아래의 <사진 2>와 같다. 또한 두모포 마을의 주산업이 미역·다시마·장어·문어 등의 어업이고 농업이 부수적인 점에서,¹⁶⁾ 두모포 골매기할매가 마고할매의 생산신적 측면에서 어업을 관장하는 영등할매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두모포 골매기할매제당의 제신은 두호 마을의 각성반이에

12) 김승찬, 황경숙, 앞의 책, 2005, 478쪽, 545쪽.

13) 송화섭, 「동아시아 해양신앙과 제주도의 영등할매 · 선문대할매」, 『탐라문화』 37, 2010, 204~205쪽.

14) 이승철, 「동해 북평지역 <마고할매> 설화의 시대적 변이양상 고찰」, 『강원민속학』 17, 2003, 307쪽.

15) 남부 지방의 민가에는 대청 또는 고향에 햇곡물을 담은 큰 단지를 두고 이것을 제석단지·세준단지·천왕독 등이라 부르고 있다. 이는 자손의 수호신인 삼신(三神)을 제사지내는 것이다(『朝鮮巫俗의 研究』, 153쪽). 두모포 할매제당의 시준단지에는 쌀을 담아 창호지로 봉인했으며, 쌀은 정월 제만을 지낼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새로 간다고 한다(2018년 2월 17일 할매제당 앞에서 가장 최일갑씨 인터뷰).

16) 오건환 외 6명, 앞의 책, 2001, 217쪽.

나씨가 현재 없다고 하더라도 마을을 세울 당시의 성씨를 추적하기 힘든 상황에서, 나씨 할머니의 입향시조신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나씨 할머니는 부산의 보편적인 당신의 성격인 입향시조신적 성격을 띠는 한편 어촌마을의 자손과 바다를 관장하는 여신인 영등할매로도 볼 수 있다. 이에 골매기할매제당은 마을의 입향시조신을 모신 제당이기도 하지만 해신당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진 2> 두모포 골매기할매제당 및 신체(神體) 시준단지



국수당은 두모포 마을에서 서쪽 뒷산의 산정에 위치하는데, 1997년 2월 4일 보호수(기장군 군나무)로 지정된 해송(塞海松) 6그루 사이에 모셔져 있다. 국수당은 골매기할매당이라고도 불리며, 기장에서 유일하게 국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국수당은 서울에서는 국사당, 중서부 해안 지역이나 경상도 등지에서는 국수당이나 국시당 또는 국수봉, 국시봉이라 불린다. 국수는 구수의 와음으로, 구수는 신산(神山)마루의 뜻을 지닌 구지봉(龜旨峰)의 구지와 같은 명칭이며, 국수당은 보편적으로 산정에 위치하는데 천제당이나 기우제장이 산정에 자리하는 예와 같은 이유로 천신의 하강처를 뜻한다.¹⁷⁾ 두호동 마을의 국수당 또한 “개벽 당시 하늘에서 신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발을 디딘 곳”이라는

전설이 유래하여,¹⁸⁾ 두호동 산정의 천제당으로 볼 수 있다.

국수당은 마을 제당에 포함되지만 마을 최고의 상위 신격을 봉안한다는 점에서 마을의 상당(上堂)으로 간주된다. 한국의 전통마을에서는 대체로 마을의 배후 산정에 국수당이 있고 그 산 허리에 산신당이 있으며, 마을 어귀에 서낭당과 함께 장승과 솟대가 서 있는 것이 일반적인 마을신앙의 형태였다.¹⁹⁾ 두호동의 경우 아래의 <지도 1>과 같이 마을의 배후 산정에 국수당이 있고, 마을에서 바다를 면하는 어귀에 해신당인 골매기할매당, 월전과의 경계면에 거릿대장군당이 위치한다. 국수당은 기장에서 두호동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이는 산신당과 서낭당(골매기당)만 남고 국사당과 장승·솟대가 소멸되어 가는 시대적 상황과 일맥상통한다.

<지도 1> 두모포 마을제당의 위치



17)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 편』, 국립민속박물관, 2009(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참조(<http://www.nfm.go.kr>)(검색일: 2018. 6. 1)).

18) 오건환 외 6명, 앞의 책, 2001, 218쪽.

19) 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2009(검색일: 2018. 6. 1)

따라서 두호동 국수당은 개벽 당시 천신이 가장 먼저 발을 디딘 천제당으로 두모포 마을의 상위 신격을 봉안한 마을 제당으로 볼 수 있다.

거릿대장군당은 마을의 남쪽 월전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다. 부산지방의 거릿대는 오리형상의 솟대로, 경남 일대에서 솟대는 당산할머니, 진떼백이서낭님, 거릿대장군님, 대장군영감님 등으로 불린다.²⁰⁾ 『부산부사원고(釜山府史原稿)』(1937)에 따르면, 부산지방의 거릿대는 오리모형을 엮은 형태로 일제강점기 당시 제당의 왼쪽에 세워두었다고 한다.²¹⁾ 현재는 『부산의 당제』(2005)에 따르면 연화리 서암 거릿대장군 제단에 오리형상의 거릿대, 시랑리 동암에 오리 형상의 거릿대가 세워져 있으며, 동부리 당산·만화리 서리 당산·반룡리 본리 할매당산·병산리 당산·구칠리 상신 당산의 당산나무 옆에 오리 형상의 거릿대를 세워두었으나 현재는 그러한 풍습이 사라졌다고 한다.²²⁾

거릿대장군당이란 명칭은 부산·마산지역의 거릿대·별신대에 ‘장군’의 칭호를 붙이는 것²³⁾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두호동 마을에는 현재 거릿대가 존재하지 않지만, 거릿대장군당이란 명칭에서, 그리고 별신대 세우기굿이 사라지면서 성신(星神)장군신전이 창건된 마산의 사례에서,²⁴⁾ 두호동의 경우도 거릿대가 마을 제당에 모셔지면서 사라진 것으로 유추된다. 다시 말해서, 연화리 서암·시랑리 동암과 같이 기장을 비롯한 부산에도 제당(혹은 당산나무)의 왼쪽에 오리 형상의 거릿대를 세워두었으나, 해방 이후 거릿대를 모실 거릿대장군당을 창건하면

20) 노성미, 「별신대의 제의적 기능 연구: 마산지역 별신대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44, 2011, 491쪽.

21) 한일병합 이후 부산부 수영의 백산(白山)에 위치한 제당의 왼쪽 편에 새 형상의 대가 세워져 있었으며, 울산지방의 경우 주로 제당의 오른쪽 편에 새 형상의 대를 세워두었다고 한다(都甲玄鄉編, 『釜山府史原稿』, 民族文化, 1937, 310쪽).

22) 김승찬, 황경숙, 앞의 책, 2005, 483쪽~604쪽.

23) 노성미, 앞의 논문, 2011, 477쪽. 참고로 통영·거제지역에서는 별신대에 장군의 칭호를 붙이지 않는다.

24) 노성미, 앞의 논문, 2011, 477쪽.

서 동부리·만화리·반룡리·병산리·구칠리의 사례와 같이 거릿대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릿대, 즉 솟대의 기능은 “일종의 원시적 경계표식으로서, 경계의 성격으로부터 읍락의 수호신, 부족의 재산 및 생명의 수호신”으로 간주된다.²⁵⁾ 두호동 거릿대장군당 또한 월전 마을과의 경계에 위치하는 것에서 경계를 표시하며, 외부로부터의 액을 막아 마을의 안녕을 수호하는 신임을 알 수 있다. 거릿대장군의 경계신적 성격은 2018년 두호별신굿에서 무가를 통해 거릿대장군을 청한 후 굿장모 어촌계장에게 흰색 액막이 종이를 찢으며 살풀이를 해주는 내용에도 나타난다. 2018년 두호별신굿에서 거릿대장군굿은 동해안별신굿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김영희 무녀가 연행하였으며, 살풀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쨌든지 이 굿을 드리고 나면은 관재살(官災煞)이나 구설살(口舌煞)이나 어깨 넘어 동재살(童子煞), 손에 육갑살(六甲煞) 발에 디딜살 막고 …(중략)… 동방 청제(靑帝), 서방 백제(白帝), 남방 적제(赤帝), 북방 흑제(黑帝), 중앙 황제(黃帝), 오방 살로 다 막아서 이래 다 거릿대 장군님네 왔다가면 재수 받아 운수대통하고 건강도 또 챙겨가야 될게 아닌교? 이 정성 드리고 나결랑 소원성취하고 일신성불 점지하세이.²⁶⁾

김영희 무녀는 “모시자 모시자 장군님네를 모시자”로 시작하는 무가를 통하여 거릿대장군을 청하고 토구름²⁷⁾을 통해 신이 강림했음을 표출한 후, 어촌계장의 머리 위로 액막이 종이를 찢으면서 살풀이 무가를 읊었다. 토구름을 통해 강림한 거릿대장군의 신력을 받아 어촌계장의

25) 손진태, 『蘇塗考』, 『한국민족문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219쪽.

26) 2018년 2월 18일 거릿대장군당굿에서 김영희 무녀의 구송 무가.

27) 오른손에 신칼·왼손에 명태포를 들고 신을 받기 위해 포춤을 추고, 무당에게 신이 실렸음을 나타내기 위해 어깨를 떠는 것을 토구름이라 한다.

모든 액이 액막이 종이로 옮겨가고, 이를 무녀가 찢어서 액을 제거한 것이다. 즉 이는 감염주술(contagious magic)²⁸⁾로서 액막이 종이를 어촌 계장에게 접촉하여 그 액을 종이에 옮겨서 찢어 버림으로서 액을 없애는 주술행위이다.

요컨대 골매기할매당(장두당)은 입향시조신을 모신 마을 제당이자 어촌의 풍어와 자손을 관장하는 마고할매의 해신당, 국수당은 천신이 강림하여 마을의 상당의 역할을 하는 천제당, 거릿대장군당은 외부로부터의 액을 막는 경계신의 역할을 하는 거릿대를 제당에 모신 당이다. 2018년 두호별신굿에서 네 번째로 모신 매방우(어사암)은 부산 지역적 특유의 해신제의 측면에서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Ⅲ. 매방우굿과 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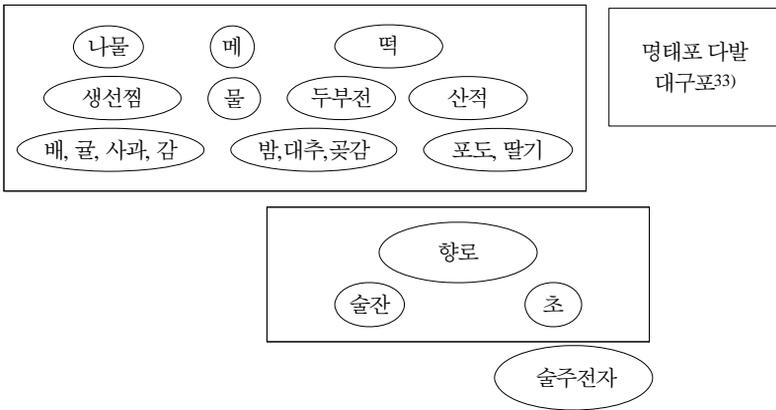
매방우는 두호마을 해변가에 있는 큰 바위로 매처럼 생겼다하여 ‘매방우’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 바위에 조선왕조 고종 20년(1894년) 어사이도재가 ‘어사암(御土岩)’이란 글자를 새겨 넣은데서 어사암이라 부르기도 한다.²⁹⁾ 2018년 매방우굿은 썰물로 바위 주변의 물이 다 빠져나간 후 매방우가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바위로 이동할 수 있을 때 진행되었다. 매방우가 밀물 때는 바다에 잠겨 있어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28) 주술은 자연을 상징적으로 모방하고 있다. 주술의 목적은 초자연적인 존재나 그 힘을 동원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프레이저(James Frazer)에 따르면, 주술은 동정적 주술(sympathetic magic)과 감염주술로 나뉜다. 동정적 주술이란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유사한 행위를 하여 유사한 일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감염주술은 어떤 사물에 접촉하여 그 힘을 접촉한 사람 혹은 접촉한 사물에 옮겨가게 하는 것이다(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박규태 옮김, 『황금가지』 1, 을유문화사, 2005).

29) 오건환 외 6명, 앞의 책, 2001, 201~202쪽.

다. 2018년 매방우굿의 제차는 일월(日月)선생굿 - 제석굿 - 천왕굿 - 꾸러미 띄우기 - 후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고로 일월선생은 두모포별신굿에서만 제사지내는 신인데, 두모포 마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곳이 매방우이기 때문에 해(日)와 달(月)의 신을 상징하는 일월선생을 매방우굿에서 가장 먼저 모신다고 한다.³⁰⁾ 이후 풍어를 관장하는 영등할매를 모시는 물국제석굿, 물에 빠져 죽은 수귀를 구원할 사찰의 사천왕(四天王)³¹⁾을 모시는 천왕굿을 차례로 연행한다. 매방우 위에 진설된 제물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매방우 위의 제물³²⁾



매방우굿의 마지막 제차인 천왕굿이 끝난 뒤에는 용왕에게 제물을 바칠 일종의 띠배³⁴⁾로 볼 수 있는 ‘꾸러미’³⁵⁾를 만들기 위해, 아래의

30) 2018년 2월 19일 두모포별신굿에서 김영희 무녀 인터뷰.
 31) 문혜진, 앞의 논문, 2017, 241쪽.
 32) 매방우 위에 제물을 상 없이 바로 진설하였다.
 33) 토구름의 무구(巫具)로 사용할 명태포 다발과 대구포는 작은 상위에 올려놓았다.
 34) 띠배는 서해안의 용신굿, 남해안의 용왕굿 등에서 배모형을 만들어 그 안에 허재비와 돈·음식 등의 제물을 넣어 용왕에게 바치는데, 이 배모형을 띠배라고 한다(하효길,

<사진 3>과 같이 타원형의 짚 안에 위 <표 2>의 제물³⁶⁾을 돈 천원과 함께 넣어 꾸러미를 플라스틱 줄로 묶었다. 완성된 꾸러미는 바다의 용왕에게 바치기 위해 물에 던져 띄웠다. 이 꾸러미가 물에 잘 떠야지 용왕이 풍어를 접지해 준 것이라고 한다.³⁷⁾

이후 위 <표 1>에서 꾸러미를 만들고 남은 제물은 전부 바다에 던져 용왕에게 마저 바쳤다. 단, 명태포 다발과 대구포는 신의 강림을 청하는 토구름을 할 때 사용되는 무구(巫具)이기 때문에, 바다에 제물로 던지지 않는다.

<사진 3> 꾸러미



앞서 기술했듯이 꾸러미는 용왕에게 제물을 바치는 띠배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띠배는 경기도 · 충청도 · 전라도의 서해안, 전라도와 경상

『무속의례와 배』, 『한국무속학』 3, 2001, 106~108쪽).

35) “그게 꾸러미라고 합니다. 꾸러미. 여기는 제사지내고 난 제물을 보통 우리 가정에도 제사지내면 고사하듯이, 제사지내고 난 제물을 꾸러미에 넣어가지고 바다의 용왕님께 바치는거예요. 꾸러미에 싸서. 거 돈도 일부 넣고 그래가지고”(2018년 2월 18일 두호동 이장 최일갑씨 인터뷰).

36) 생선찜 한 마리와 포도만 통째로 넣고 그 외의 제물은 조금씩 떼어 넣었다.

37) 2018년 2월 18일 두호동 이장 최일갑씨 인터뷰.

도의 남해안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 분포하기 때문에,³⁸⁾ 꾸러미를 용왕에게 바치는 것은 동해안 지역에서는 보기 드물다. 이는 동해안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용왕굿 또는 영등굿을 할 때 띠배에 제물을 넣어 용왕에게 바치는데 반해, 동해안별신굿에서는 용왕굿을 연행할 때 용왕을 위한 제물을 선주들과 해녀들이 직접 바다에 가져가서 바치기 때문에 띠배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꾸러미를 바다에 띄워 용왕에게 바친 후, 굿장모가 천왕대를 잡고 뱃일을 하는 주민들이 후리그물로 상징되는 무명천을 잡아 그물을 펼치듯이 가로로 길게 늘어선다. 그리고 나서 굿장모 이하 주민들이 후리그물로 고기를 몰아가듯이 양중들의 뱃노래에 맞추어 매방우 위에서부터 마을 어귀까지 몰아간다. 이장 최일갑씨(71세)는 매방우 위 천왕대를 세운 자리가 예전에 후리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장소로, 후리그물의 양 끝에서 서서히 좁혀오면서 물고기를 가운데로 몰았다고 한다.³⁹⁾ 최일갑씨의 이야기처럼 주민들은 무명천을 잡고 실제 후리그물을 놓듯이 좁혀오면서 마을 어귀까지 다다르면, 물고기가 도망가지 못하게 후리그물로 상징되는 천을 원형으로 만들어 봉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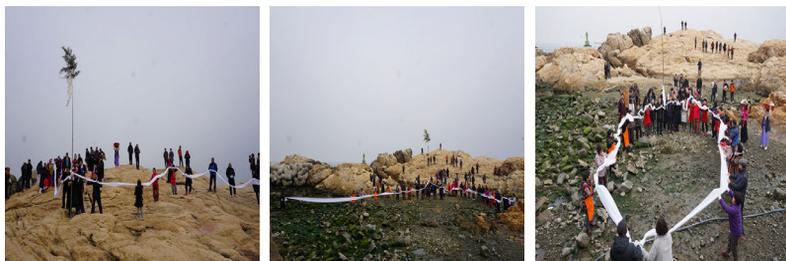
그리고 나면 무당, 양중, 뱃일 관련 주민들이 만선의 풍악을 울리며 한 바탕 춤을 춘 뒤, 후리그물로 상징되는 천을 잘라서 주민들에게 나눠준다. 최일갑씨는 천을 잘라서 나눠주는 것이 풍어를 기원하는 행위라고 했으며, 이를 마을 주민들은 다음 별신굿 또는 다음해의 정월 제만때까지 소중한 곳에 보관한다고 한다.⁴⁰⁾ 후리의 연행 장면은 다음의 <사진 4>와 같다.

38) 하효길, 앞의 논문, 2001, 106~108쪽

39) 2018년 2월 18일 두호동 이장 최일갑씨 인터뷰.

40) 2018년 2월 18일 두호동 이장 최일갑씨 및 김씨 할머니(75세) 인터뷰.

<사진 4> 후리 연행 장면



후리그물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 내수면어업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바다어업이 전면화되면서, 어로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용되기 시작했다. 즉, 조선 전기의 어망을 칩이나 벗짚 등으로 만들던 형태에서 면이나 명주실을 원료로 만드는 면휘망(綿揮網), 진사행망(眞絲行網) 등이 조선 후기에 등장하였고, 동해안에서는 저인망의 일종인 후리그물(揮羅網)을 이용하여 어로를 행하였다.⁴¹⁾ 후리그물은 18세기 중반에 쓰인 서유구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전어지(佃漁志)」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당망은 바다 속에 던지는 대망이다. 일반적으로 사방이 1리 정도 이고, 부자⁴²⁾가 달려있다. 때를 기다려 수인이 그것을 당킨다. 당망은 왕사의(王思義)의 삼재도회를 보면 그림이 있지만 설명이 없다. 막을 곳에 망을 설치하고, 좌우에서 각 2인이 그물을 당기는 형태이다. 『화한삼재도회』에서 이르기를 해중대망, 대개 망고(網罟)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한다. 요즘 사람들은 칩껍질을 벗겨 꼬아서 가는 줄을 만

41) 이영학, 「조선 후기 어업에 대한 연구」, 『역사와 현실』 35, 2000, 191쪽.

42) 『화한삼재도회』에 따르면 “부자는 낚시 도구이며,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물 위에 떠서 당망이 떠있는 위치를 알려준다. 부자는 통으로 만든다.”를 오창현, 「20세기 전후 서해안 대형 어선어업의 존재양상과 전개과정」, 『도서문화』 35, 2010, 171쪽에서 재인용.

들고 짚을 연결해 큰 망을 만든다. 길이는 수장에 이르며 넓이는 수백 발에 이른다. 혹 강류를 막거나 포빈, 물가 같이 조석이 왕래하는 곳을 막고 썰 수 없는 물고기를 얻는다. 모두 당망에 속한다. 부자 및 추 등의 형태와 구조는 수고(數罟)와 다르지 않으며, 특히 큰 것은 수배에 달한다. 속칭 휘라망(후리그물)이라고 부른다. 부자는 면사로 그것을 만든다.⁴³⁾

즉, 조선시대에 후리망을 이용한 어업은 늦어도 18세기 중반 이전에 성립했던 것으로 보이며, 두모포별신굿에서는 적어도 300년의 역사를 가진 후리그물을 사용한 어업방식을 ‘유사한 행위를 통해 유사한 현상을 초래한다’는 동정적 주술로 연행하여 풍어를 기원하였다. 최일갑 이장은 유년시절부터 두모포별신굿을 할 때마다 후리를 연행해왔으며,⁴⁴⁾ 김영희 무녀는 후리가 두모포별신굿의 특징으로 그 전통이 100년, 200년 거슬러 올라갈 것이라고 하였다. 두모포별신굿에서 후리를 연행하는 이유는 “머르치(멸치)가 나니까네. 이제 후리를 해가지고 고기를 막 잡아들인다는 뜻으로. 옛날에는 그물을 놓으면 멸치를 후리를 해서 잡으면 땡겨가지고, 그레가지고 옛날에는 다 먹고 살았거든.”이라고 하여,⁴⁵⁾ 후리가 풍어를 기원하기 위한 주술적 놀이임을 나타낸다.

요컨대 두모포별신굿에서 나타나는 매바우굿에서 일월선생을 모시는 거리와 용신에게 바치는 꾸러미는 기장별신굿 중에서도 두모포별신굿에서만 연행된다. 반면 멸치잡이는 기장에서부터 다대포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주요 생업 중 하나로서, 후리망을 이용해 멸치떼를 모는 동정적 주술 놀이인 후리는 다대포·수영만 멸치잡이 후리소리와 같이 부산의 고유한 해신제의 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43)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의 「전어지」편을 오창현, 앞의 논문, 2010, 171쪽에서 재인용.

44) 2018년 2월 18일 두호동 이장 최일갑씨 인터뷰.

45) 2018년 2월 19일 두모포별신굿에서 김영희 무녀 인터뷰.

IV. 물국제석굿과 용왕굿

1. 물국제석굿

한국의 해신을 크게 나누면 남성 신격의 용왕신과 여성 신격의 할망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⁴⁶⁾ 부산별신굿에서 또한 해신은 여신인 영등할매와 남신인 용왕으로 대별된다. 다시 말해서, 부산별신굿은 여신을 위한 안굿과 남신을 위한 밖굿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여성 해신인 영등할매는 안굿의 물국제석굿⁴⁷⁾에서 모셔지며, 남성 해신인 용왕은 밖굿의 용왕굿에서 모셔지는 것이다.

먼저 여성 해신으로서 물국제석굿에 모셔지는 영등할매는 “육지 농사와 바다 농사(해산물 양식)가 잘 되도록 바람을 관장하는 제석할매(또는 영등할매)”을 지칭한다.⁴⁸⁾ 홍석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따르면, 2월 초하루 영남 지방의 풍속에서는 집집마다 신에게 제사하는데 이 신을 영등신(靈登神)이라 하며, 영남에서부터 호중(湖中)에 이르기까지 농가에서 받드는 신이라고 한다.⁴⁹⁾ 부산별신굿에서 제석굿은 신의 본풀이를 구송하지 않는 축원무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제신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무녀가 굿에서 짧게 설명하는 신의 성격과 그 성격에 관련된 축원내용을 경청해야 된다. 김영숙 무녀는 제석굿에서 영등할매를 “딸을 데리고 내려오면 그 해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며느리를 데리고 내려오면 그 해에는 비가 많이 온다.”⁵⁰⁾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육지 농사뿐만 아니라 미역을 비롯한 각종 해산물 농사가 잘되길

46) 이원영, 『제주 여성당신(女性堂神)의 해신적(海神的) 성격과 존재 양상』, 『한국무속학』 33, 2016, 165쪽.

47) 동해안별신굿 무형문화재 보유자 김영희 무녀는 제석굿을 물국제석굿으로 부른다.

48) 2018년 2월 18일 매방우굿의 제석굿에서 김영숙 무녀가 구송한 무가 인용.

49) 이능화, 서영대 역주, 『조선무속고』, 창비, 2008, 442-443쪽.

50) 2018년 2월 18일 매방우굿의 제석굿에서 김영숙 무녀가 구송한 무가 인용.

축원하였다. 즉, 김영숙의 제석굿의 무가로부터 영등할매가 바람과 비를 관장하여 육지 농사와 바다 농사(해산물 양식)를 관장하는 신임을 알 수 있다.

여성 해신으로서 영등할매의 기원에 대해 이능화는 “이 신을 할머니라 칭하는 것은 마고(麻姑)의 고(姑)와 같은 것”,⁵¹⁾ 즉 마고할매가 농촌에서는 농업을 관장하는 신으로 어촌에서는 어업을 관장하는 신인 영등할매로 좌정하였다는⁵²⁾ 설과 일치한다. 김인희는 또한 영등할매를 “등을 보내어 조난을 당한 어민들을 구하는 것에 비추어 ‘영등(迎燈)’ 혹은 마조가 무당이였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영등(靈燈)’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영등할매를 마조신”으로 해석하였다.⁵³⁾ 즉 이능화와 김인희는 영등할매를 중국 도교계 여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송화섭은 “영등굿⁵⁴⁾이 연등제의 유품이라는 점에서 영등할매를 고려 시대에 제주 해역에서 항해안전을 관장하였던 관음보살”로 보고 있다.⁵⁵⁾ 따라서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영등할매는 동아시아의 문화교류로 인한 대표적인 여성 해신인 관음보살 혹은 마조·마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1) 이능화, 앞의 책, 2008, 443쪽.

52) 강진욱의 『「마고할미」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1993) · 이승철의 『동해 북평지역 <마고할미> 설화의 시대적 변이양상 고찰』(2003) · 강민경의 『도교적 상상력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 고찰: 마고할미를 중심으로』(2008) · 송화섭의 『한국과 중국의 할미 해신 비교연구』(2013) · 리전녕의 『한·중 마고여신 비교연구: 문헌기록의 수용양상을 중심으로』(2014) 등은 한국의 해안을 따라 분포하는 할머니신을 도교의 마고신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53) 김인희, 『한·중 해신신앙의 성격과 전파: 마조신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3, 2001, 92쪽.

54) 제주도에서 영등신은 ‘영등할매’이라는 여신으로, 2월 1일에 입도(入島)하여 15일에 나가는 내방신이다. 영등신이 이 기간 동안에 섬 주변 바다의 소라·전복·미역 등 해녀 채취물을 증식(增殖)시켜주며, 어로(漁撈) 일반까지 보호해준다고 여긴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택일하여 (주로 1일·13일·14일·15일)에 당굿을 하는데, 이를 ‘영등굿’이라 한다.

55) 송화섭, 앞의 논문, 2010, 209쪽.

영등할매에 대한 신격은 앞서 기술했듯이 홍석모의 『동국세시기』에서 영남에서부터 호중(湖中)에 이르기까지 농가에서 받드는 신”이라 하였다. 부산에서도 영등할매가 별신굿의 물국제석거리에서 모셔지는 것을 제외하고 세시풍속에서도 제사지내졌는데, 2월 초하룻날부터 스무날까지의 사이에 ‘영동 할만네’, ‘2월 할만네’라고 하여 풍신제를 올렸다. 일반 농가에서는 이 바람을 피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면하기 위하여, 또 어촌에서는 피난선의 피해를 면하기 위하여 ‘바람 올린다’고 하여 영등할머니와 그 며느리에게 제사를 올렸고,⁵⁶⁾ 기장에서는 2월 초하루에서 그믐날까지 길일을 택하여 부엌에다가 찰밥, 고기, 나물, 과일 등을 준비하여 놓고 술에 숟가락을 꼽고 부뚜막에 반찬과 젓가락을 놓은 뒤, “바람마소, 구름 마소, 영동할마씨네요”라고 비손하였다.⁵⁷⁾ 따라서 민간의 세시풍속에서 육지 농사와 바다 농사의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모셔지던 영등할매가 부산별신굿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농업의 신으로 토착화된 제석⁵⁸⁾이라는 불교적 색채의 신의 이름을 빌려 제석할매 혹은 영등할매로 모셔지게 된 것이다.⁵⁹⁾

56) 崔常壽, 『釜山の歲時風俗』, 『향도부산』 2, 1963, 394쪽. 김승찬, 「부산 수영지방의 당산제와 세시풍속」, 『국어국문학지』 29, 1992, 229쪽.

57) 조태흠, 「기장지방의 세시풍속」, 『한국민족문화』 8, 1996, 425쪽.

58) 일연 선사가 환국(桓國) 아래에 망령되게 “제석(帝釋)을 붙여서 신사(神事)의 천주(天主)가 드디어 불교의 제석으로 변하였으니, 예를 들어서 이종휘(李種徽)의 『수산집(修山集)』에서 구월산(九月山) 삼성사(三聖祠)를 일러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오늘날 제석신(帝釋神)을 받드는 것이다“했음이 이것이다. 우리나라 각 사찰에서 제석일(除夕日)이 되면 절 안에 중들이 각기 자기의 재미(齊米, 일상의 밥짓기를 위한 쌀)를 가지고 미고(米庫)가 있는 곳으로 모여서 신위(神位)를 설치하고 제석신을 봉안한다. 여항(閻巷)의 민가에서는 흰 항아리에 쌀을 담아 다락방(樓房)에 안치하고 이를 ‘데석 단디(Tsesoktanchi)’ 또는 ‘데석 항아리’라고 하니 ‘데석’을 한자로 옮기면 제석(帝釋)이 되고, ‘항아리’ 및 ‘단디’는 항(缸)이 된다(이능화, 이재곤 옮김, 『朝鮮神事誌』, 東文選, 2007, 26~28쪽).

59) 영등할매는 부산별신굿의 물국제석거리뿐만 아니라 경남 해안의 물영동제에도 나타나고 있어, 향후 경남지역의 영등할매를 모시는 민속제의의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영등할매의 부산지역의 특색을 규명하는 작업은 차후 과제로 남겨두

두모포별신굿에서 물국제석거리는 부산별신굿의 일반적인 굿 제차와 같이 진행되었다. 즉, 무가 구송을 통한 청신(請神) - 토구름을 통한 강신(降神) - 신의 공수와 축원 - 신을 놀리는 놀음굿(娛神) - 신을 보내는 송신(送神)으로 연행되었다.

2. 용왕굿

용왕은 김동언 무녀의 “모십니다, 용왕님네를 모십니다. 사해팔방의 용왕님네를 모십니다.”라는 무가의 구송에서 동해의 광연왕(廣淵王), 남해의 광리왕(廣利王), 서해의 광덕왕(廣德王), 북해의 광택왕(廣澤王)⁶⁰⁾을 부산별신굿의 용왕이라 함을 알 수 있다. 용이 짐승의 형상임에 비하여 용왕은 남성의 모습으로 표상된다. 해신으로서 용신신앙은 중화의 영향으로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신앙으로 전파되었는데, 한국의 용신신앙은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 용의 순수 우리말이 ‘미르’인 것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것과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 융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⁶¹⁾

중국에서의 용은 춘추시대까지 하신(河神)의 보좌에 불과했지만, 용이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고 또한 구름과 안개를 토하기 때문에 후대의 용은 강우생풍(降雨生風)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다. 현대 이후 용의 강우 능력과 제왕의 상징이 결합되어 지위가 점차 높아지고, 백성들이 기우제를 지낼 때 용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당송 이래로 불교와 도교에서 용과 운우(雲雨)와의 관계를 강조했는데, 불경에서는 여러 용왕들이 “힘써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고자 한다.

60) 2018년 2월 21일 두모포별신굿에서 김동언 무녀의 용왕굿 연행 사설.

61) 채영숙, 「문화콘텐츠에 나타난 상징동물 용(龍)의 고찰」, 『동북아 문화연구』 21, 2009, 205쪽.

했고, 도교에서는 물이 있는 곳이 만나면 곧 그 곳에 용왕사당을 지었다. 이를 황제들이 더욱 발전시켜 용신을 왕으로 봉하면서 점차 용신신앙이 확대되고, 용왕이 모든 물의 영역을 점하여 수신에 대한 제사가 용왕에 대한 제사로 바뀌었다.⁶²⁾ 이와 같은 중국의 용신신앙과 용왕에 대한 제사는 동아시아로 전파되면서 한국의 수신 및 해신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국의 용신신앙은 중국의 용신신앙의 영향뿐만 아니라 불교의 영향도 받았는데, 불교에서의 용은 부처와 불법을 수호하는 팔부중(八部衆)의⁶³⁾ 하나로 호국용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부산별신굿에서의 용신은 물을 관장하는 중국 용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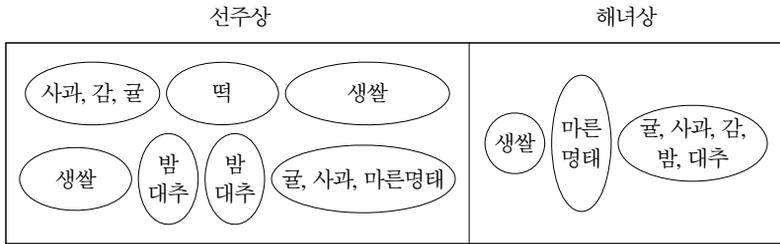
용왕굿은 부산별신굿에서 가장 큰 굿으로 다른 굿거리에 비해 선주와 해녀들이 굿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만선을 상징하는 한지를 머리에 메고 살풀이하는 동정적 주술이 연행된다. 구체적으로 용왕굿은 굿청이 아닌 용왕이 살고 있는 바다 앞에서 제사를 준비하면서 시작된다. 용왕상은 선주상과 해녀상으로 나뉘며, 용왕굿을 올리기 전 선주 부인들과 해녀들이 각각 상을 준비한다. 두모포별신굿의 용왕상을 도표로 그리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2018년 두모포별신굿의 용왕굿은 김동언 무녀가 연행하였으며, 김동언 무녀는 용왕을 청하는 무가를 구송한 후 선주와 해녀들의 이름을 각각 호명하여 그들이 직접 용왕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하였다. 즉, 무녀가 호명하면 선주는 선주상에, 해녀는 해녀상에 절을 올리고 제물(돈)을 바치며 용왕에게 풍어와 어업의 안전을

62) 김인호, 「부산 경남 남해안의 별신굿과 중국 동해안 풍어제와의 비교 연구」, 『중국인문과학』 29, 2004, 578쪽.

63) 팔부중은 천룡팔부중(天龍八部衆)이라고도 하며 불법을 수호하는 천, 용, 야차, 건달바, 이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 8종의 신장(神將)을 말한다. 팔부중에 속하는 신들은 원래 고대 인도의 신들로서 악마나 귀신에 속하였는데 석가에게 교화된 후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선신(護法善神)들로 재구성되어 10대 제자와 함께 부처의 설법을 호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기원하였다. 선주와 해녀가 짚을 올리고 제물을 바칠 동안 김동언 무녀는 각 가정의 풍어와 안녕을 축원해 주었고, 김영희 무녀는 각 가정의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는 소지⁶⁴⁾를 올려주었다.

<표 3> 용왕상



선주·해녀들이 전부 용왕에게 제물을 바치고 나면, 김동언 무녀는 선주 수만큼의 명태를 놀려서 도구름을 한 후, 해녀들의 수만큼의 명태를 재차 놀려 도구름을 하였다. 이렇게 도구름을 하여 신력이 깃든 명태는 용왕굿이 끝난 후, 선주와 해녀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어 용왕밥⁶⁵⁾ 먹이기 할 때 사용한다. 명태를 무구로 한 도구름이 끝나면, 김동언 무녀는 물국대를 무구로 용왕이 강림하기를 청한 후, 무녀는 용왕님네 모시고 오는 집사가 되어 용왕의 공수를 전한다. 이후 물국대 밑에 따라온 수귀들을 “물에서 죽은 영혼들 물국대 밑에 마이 왔다가 올라가세요, 극

64) “명단 부르면 차례차례 들어와 소지 한 장 올리고 정성을 드리면 용왕님네요, 마니 부러주소(불려주소), 챙겨주소, 소지 일 장 올리면 재수왕기 대동하세이~”(2018년 2월 21일 두모포별신굿 용왕굿에서 김동언 무녀의 굿 설명 부분 채록). 즉, 소지는 용왕님께 정성을 드리는 것이며, 소지가 타면서 하늘로 곧게 올라가면 용왕님이 기원을 들어준다는 의미로 재수왕기한다는 것이다.

65) 한지에 쌀을 조금 싸서 마른 명태와 함께 용왕에게 헌식하기 위해 바다에 던지는 쌀을 말한다. 쌀 대신에 밥으로 용왕밥을 만들기도 한다. 이능화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도 “용신굿에서 밤과 쌀로 밥을 지어 물속에 던져 고기들에게 공양하는데, 이름하여 어보시(魚布施)라 한다. 세간에서 와전하여 ‘어부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고 하였다(이능화, 앞의 책, 2008, 296쪽).

락에.”라고 위로한 후, 물국대에 따라온 수귀를 위한 노자돈을 물국대의 종이 무구⁶⁶⁾에 걸어 바친다. 물국대의 모습과 노자돈 걷는 모습은 다음의 <사진 5>와 같다.

<사진 5> 물국대와 ‘매기친다’에 노자돈 걷는 모습



이렇게 물국대에 용왕이 강림한 후, 무녀는 용왕의 신력을 받아 만선을 상징하는 소지종이로 ‘갈매기를 맨다’. 소지종이를 선주의 가족과 해녀들의 정수리 부분에 일정하게 묶는 것을 ‘갈매기를 맨다’라고 한다. 머리에 매어진 흰 소지종이를 ‘갈매기’라고 칭하는 것이다. 갈매기는 어부들이 만선으로 돌아올 때 갈매기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을 상징하는 것⁶⁷⁾으로, 동정적 주술에 해당한다. 선주와 해녀들의 머리에 갈매기를 다 엮은 후 용왕을 놀리는 놀음굿을 진행하며, 놀음굿이 끝난 후 무녀들은 이 한지를 풀어 찢으며 ‘살풀이’를 한다. 갈매기를 매는 장면과 갈매기를 찢으며 살풀이 하는 장면은 다음의 <사진 6>과 같다.

66) 골매기대, 천왕대, 물국대에 동일한 종이로 만든 무구를 다는데, 이것을 ‘매기친다’고 부른다.

67) 심상교, 앞의 논문, 2005, 163쪽.

<사진 6> 머리에 갈매기를 맨 장면과 살풀이 장면



그런 다음 선주와 해녀들은 무너로부터 용왕밥 4개와 마른명태 한 마리, 막걸리 1병을 건네받아 선착장이나 부두로 나간다. 주민들은 용왕님께 자신의 소망을 손 모아 기원하고 용왕밥은 바다에 던져 넣고 막걸리는 바다에 뿌린다. 마른 명태는 머리만 떼어서 바다에 던져 넣고 몸통은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다수이지만, 한 마리 전체를 바다에 던지는 사람과 자신의 배 한 곳에 묶어두는 선주도 있다.

요컨대 해신제로서 용왕굿은 보편적이지만, 물국제석굿은 불교의 색채를 입은 제석할매 (또는 영등할매)로서 부산 지역 특유의 해신제로 볼 수 있다. 또한 해신제에 있어서 만선을 상징하는 ‘갈매기’ 매기는 만선으로 돌아올 때 갈매기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을 상징하는 동정적 주술로, 부산의 용신굿에서만 진행되는 부산 고유의 제의 행위로 볼 수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두모포별신굿에서 부산 지역 특유의 해신과 해신제를 살펴 보았다. 두호동 마을에서 해신당은 장두당(골매기할매당)으로, 한국의 해안지역을 따라 분포하는 할매당(또는 각시당)은 중국 도교의 여신 마고의 영향을 받은 여성 해신당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들 해안지역의 할매신들은 어촌에서는 어업을 관장하는 신인 영등할매로 풍어뿐만 아니라 삼신할매로서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부녀자에게 자식을 점지해주는 신의 역할을 한다. 즉, 두호동 마을의 할매당과 할매당은 부부신을 모시는 당이 아니라, 천제당과 해신당이라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마을 제당이다.

두모포별신굿에서 나타나는 부산지역 특유의 해신제로서는 매방우굿을 들 수 있다. 매방우굿은 부산별신굿 중에서 두호동에서만 유일하게 연행되며, 매방우굿에서 일월선생을 모시는 거리와 용신에게 바치는 꾸러미 띄우기는 두모포별신굿에서만 연행된다. 매방우굿이 부산별신굿 중 두모포별신굿에서만 연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장에서부터 다대포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주요 생업 중 하나인 멸치잡이와 관련된 해신제이기 때문에, 후리망을 이용해 멸치떼를 모는 동정적 주술 놀이인 후리는 다대포·수영만 멸치잡이 후리소리와 같이 부산의 고유한 해신제의 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부산별신굿은 여신을 모시는 안굿과 남신을 모시는 밖굿으로 나뉘어 연행되는 것이 특징인데, 안굿에서는 물국제석굿에서 바다를 관장하는 제석할매(또는 영등할매), 밖굿에서 용왕굿은 중화의 영향을 받아 동아시아 보편적인 해신이 된 사해용왕을 제신으로 모신다. 용왕굿은 한국의 해안지방의 보편적인 해신제이지만, 물국제석굿은 불교의 색채를 입은 제석할매(또는 영등할매)를 모시는 굿거리로서 동해안별신

굿이 진행되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부산 지역 특유의 해신제로 볼 수 있다. 또한 해신제에 있어서 만선을 상징하는 ‘갈매기’ 매기는 만선으로 돌아올 때 갈매기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을 상징하는 동정적 주술로, 부산의 용신굿에서만 진행되는 부산 고유의 해신제의 주술로 볼 수 있다.

현재 부산지역의 별신굿 중 두모포별신굿만큼 지역 특유의 제의방식이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부산별신굿은 주로 어촌지역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해신제가 중요시되며, 풍어기원과 배사고 방지 기원이 주를 이룬다. 그래서 두모포별신굿에서도 마지막 굿거리로 김동열 양중이 거리굿을 연행하였는데, 해신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고기 잡다가 죽은 어부 귀신, 다시마/미역/전복 잡다가 죽은 해녀 귀신을 잘 대접하여 어업의 흥사의 방지 및 어부와 해녀를 위한 축원을 하였다. 영등할매가 비와 바람을 내리며 바다에 풍어를 담당하는 용신이 산다는 관념, 억울하게 죽은 귀신을 잘 대접하지 않으면 흥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은 현대사회에서 미신으로 치부되어, 부산별신굿에 있어서 점점 종교성과 제차의 엄중함이 약화되면서 지역 특유의 제차가 잊혀져가고 있다. 부산의 전통적인 제의가 그 종교성과 독자성을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글이 미신과 종교의 경계에서 부산별신굿의 현대적 함의를 재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 강용권, 『釜山地方의 『별신굿』考』, 『한국문화인류학』 3, 1970.
 국립해양박물관, 『동삼풍어제』, 국립해양박물관, 2013.
 김승찬, 『부산 수영지방의 당산제와 세시풍속』, 『국어국문학지』 29, 1992.
 김승찬, 황경숙, 『부산의 당제』,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5.
 김인호, 『부산 경남 남해안의 별신굿과 중국 동해안 풍어제와의 비교 연구』, 『중국인문과학』 29, 2004.

- 김인희, 「한·중 해신신앙의 성격과 전파: 마조신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3, 2001.
- 김형근, 「동해안 남대 별신굿의 특징 연구: 안대 별신굿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7, 2013.
- 노성미, 「별신대의 제의적 기능 연구: 마신지역 별신대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44, 2011.
- 都甲玄鄕 編, 『釜山府史原稿』, 民族文化, 1937.
- 문혜진, 「동해안 기장 별신굿의 제신(祭神)에 관한 고찰: 2013년 기장 별신굿의 사례 연구」, 『향도부산』 34, 2017.
- 손진태, 「蘇塗考」, 『한국민족문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 송화섭, 「동아시아 해양신앙과 제주도의 영등할망·선문대할망」, 『탐라문화』 37, 2010.
- 심상교, 「영남 동해안지역 풍어제의 연행특성과 축제성」, 『한국무속학』 10, 2005.
- 오건환 외 6명, 『부산지명총람』 제 7권,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1.
- 오창현, 「20세기 전후 서해안 대형 어선어업의 존재양상과 전개과정」, 『도서문화』 35, 2010.
- 이능화, 이재곤 옮김, 『朝鮮神事誌』, 東文選, 2007.
- 이능화, 서영대 역주, 『조선무속고』, 창비, 2008.
- 이승철, 「동해 북평지역 <마고할미> 설화의 시대적 변이양상 고찰」, 『강원민속학』 17, 2003.
- 이영학, 「조선 후기 어업에 대한 연구」, 『역사와 현실』 35, 2000.
- 이원영, 「제주 여성당신(女性堂神)의 해신적(海神的) 성격과 존재 양상」, 『한국무속학』 33, 2016.
- 장주근, 「韓國의 神堂 形態考」, 『민족문화연구』 1, 1964.
-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박규태 옮김, 『황금가지』 1, 을유문화사, 2005.
- 조태홍, 「기장지방의 세시풍속」, 『한국민족문화』 8, 1996.
- 채영숙, 「문화콘텐츠에 나타난 상징동물 용(龍)의 고찰」, 『동북아 문화연구』 21, 2009.
- 하효길, 「무속의례와 배」, 『한국무속학』 3, 2001.
- 崔常壽, 「釜山の 歲時風俗」, 『향도부산』 2, 1963.

| Abstract |

The Sea Gods And Rituals For Sea Gods In Busan Byeolsingut

Mun, Hea-Jin

Dumopo Byeolsingut is performed sexennially, and it had performed in front of off the coast of Duho-dong from February 17 to 22 in 2018. Those who prepare and participate in rituals of Dumopo Byeolsingut are called as ‘Makgangmo’ and ‘Gutgangmo’, which signifies the ritual tradition of Busan Byeolsingut. In addition, traditional rituals of Busan such as ‘Gilnoli’, ‘Meibangugut’, ‘setting Guryemi(a ship made by the straw) afloat’, ‘Huri’ and so on are being performed in Dumopo Byeolsingut. Busan Byeolsingut including Gijang Byeolsingut is also called as Pungoeje(ritual for a big catch of fish) because Busan Byeolsingut is generally performed in fishing village. In other words, rituals for safety and heavy catch of fishermen and female divers are important in Busan Byeolsingut of fishing village; as a result, in order to identify regionality of Busan Byeolsingut, rituals for sea gods should be studi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egionality of sea gods and rituals for sea gods in Busan Byeolsingut, analyzing fieldwork of ‘Meibangugut’, ‘Huri’, MulgukJeseokgut and Yongwanggut in 2018 Dumopo Byeolsingut. This study might be helpful for understanding distinct rituals for sea gods and regionality of Busan Byeolsingut under situation of identification of Dongheian Byeolsingut(Byeolsingut of eastern coast of Korea) and be useful for affording ethnography in Dumopo Byeolsingut.

Keywords: Dumopo Byeolsingut, Haesindang(Shrine For Sea Gods), Yongsin(Dragon Gods), YeongdeungHalmei, Huri

